

# 서울~광주, 귀성 4시간20분·귀경 5시간40분

### 국토부 설 연휴 교통량 예측...귀성 전년보다 2시간 감소

### 7일 오전·8일 오후 혼잡...6일간 3645만명 대이동 예상

설 연휴기간(2월 6일~10일)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4시간 20분, 서서울~목포 4시간 50분으로 예측됐다.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 5시간 40분, 목포~서서울 7시간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이동시간이 지난해보다 귀성은 2시간 감소하고 귀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은 연휴가 길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혼잡시기는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7일 오전, 귀경길은 설날인 8일 오후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5일~10일 옛새간 총 이동인원은 3645만명으로 하루 평균 559만명이 민족 대이동에 나설 것이라고 2일 일 밝혔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16만대로, 10

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설(3554만명) 대비 2.7%(91만명) 증가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08만명으로 지난해 설(592만명) 대비 2.7%(16만명)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설 당일에는 최대 790만명이 한꺼번에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000세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귀성객 중 25.5%가 7일(일) 오전에 출발하고, 귀경객 중 27.1%는 8일(월)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귀성객이 이용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5%로 가장 높았고, 버스 10.8%, 철도 3.6%, 항공기 0.7%, 여객선 0.4% 순으로 파악됐다. 전체 통행량 중 수도권 관련 통행량이 귀성시 42.7%, 귀경시 40.7%를 차



지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청권의 고속도로는 일정부분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가하락 여파로 귀성·귀경길 교통비용도 다소 줄어든 전망이다. 설 연휴기간 귀성·귀경 시 예상 교통비용은 13만6000원으로, 지난해 연휴기간(13만8000원)보다 2000원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귀성객 체류기간은 1박2일(27.8%), 2박3일(27.9%), 3박4일(20.4%), 4박5일 이상(12.3%) 순으로 조사됐다. 올 설 대책기간 예상 출국자는 63만4000명으로 하루평균 10만6000명이 해외로 빠져 나갈 전망이다. 일본(24.6%)·중국(23%)·동남아(22.8%) 방문객이 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 1788회, 철도 52회, 항공기 13편, 여객선 141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52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해질 18:02, 달출몰 02:28, 달지름 13:14

제감온도 낮아요  
최저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맑음 | -6/6 | 보성  | 맑음 | -6/4 |
| 목포 | 맑음 | -4/4 | 순천  | 맑음 | -4/6 |
| 여수 | 맑음 | -3/5 | 영광  | 맑음 | -9/5 |
| 나주 | 맑음 | -8/6 | 진도  | 맑음 | -4/5 |
| 완도 | 맑음 | -3/5 | 전주  | 맑음 | -7/4 |
| 구례 | 맑음 | -8/5 | 군산  | 맑음 | -6/4 |
| 강진 | 맑음 | -5/5 | 남원  | 맑음 | -8/4 |
| 해남 | 맑음 | -6/5 | 축산도 | 맑음 | 1/4  |
| 장성 | 맑음 | -8/5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0 | 서~북서    | 0.5~1.0 |
|        | 면바다    | 북서~북    | 0.5~1.5 | 서~북서    | 0.5~1.5 |
| 남해서부   | 앞바다    | 북서~북    | 0.5~1.0 | 서~북서    | 0.5~1.0 |
|        | 면바다(동) | 북서~북    | 1.0~2.0 | 서~북서    | 1.0~2.0 |
| 면바다(서) | 북서~북   | 1.0~2.0 | 서~북서    | 1.0~2.0 |         |

◇생활지수

|      |      |
|------|------|
| 체감온도 | 관심   |
| 동파   | 낮음   |
| 뇌졸중  | 매우높음 |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9:15 | 01:54 |
|    | 21:21 | 15:19 |
| 여수 | 밀물    | 썰물    |
|    | 05:03 | 11:14 |
|    | 16:51 | 23:30 |

◇주간 날씨

| 4(목) | 5(금) | 6(토) | 7(일) | 8(월) | 9(화) | 10(수) |
|------|------|------|------|------|------|-------|
| ☀    | ☀    | ☀    | ☀    | ☀    | ☀    | ☀     |
| -3/7 | -2/5 | -3/3 | -4/5 | -2/7 | -1/8 | 0/10  |

##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 선별 지원...정부, 교육감 길들이기?

### 예비비 3천억원 의결...광주·서울·경기·강원·전북은 제외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임의적인 선별 지원 방침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회의 예산 편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예비비로,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점등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된 돈이다. 다만,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서울·경기·강원·전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095억원으로, 목적예비비는 교육청별 학생 수와 지방재정 발행 규모, 노후 건물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172억원 중 절반인 86억원

을 지원받게 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처럼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산·충북·인천·경남·제주교육청에는 배정 예비비 중 50%가 지원된다. 하지만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극

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육대란을 푸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보육 대란' 해결이 아닌, 압박용 대책으로 '교육감 길들이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예비비 선별 지원과 관련, "전국 시·도 교육청의 힘든 재정 형편을 고려한

국회의 예산 편성 취지와 맞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유감"이라며 "전년도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 실태와도 달라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2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잔치에 참가한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고 어르신들을 향해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광주지검 오정희 여성범죄조직부 초대 부장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전담검사 당직제도’를 마련해 전담검사가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지검에 신설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책임을 맡은 오정희(여·45·사진) 초대 부장검사는 2일 “광주·전남지역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여성·아동 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막을 수 있다. 경찰·교육청·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여성단체 등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자들과 비상연락망을 공유해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부가 4대약으로 규정한 성범죄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에 설치했다. 이 곳에는 오 부장을 비롯해 검사 3명, 수사관 5명이 배치됐다. 여성을 피해자로 한 범죄를 담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전담검사 당직제도를 마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또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신치료 등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시, 남구보건소 장애인 차별용어 시정 요구

공공의료기관인 광주시 남구보건소에서 장애인 차별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일자 7면)과 관련, 광주시가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2일 각 자치구 보건소의 건강진단서 서식을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순화되지 않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 전산시스템, 각종 서식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역 민간의 의료기관에서도 장애인 차별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